

■ 가해·제2362호

주님 공현 대축일

2026년 1월 4일

춘천 주보

▣ 목 차

02 말씀의 향기
주님을 바로 알아 봅고
진실되이 살아가는

03 사제 단상
태도, 가장 깊은 언어

04 특집
함께 읽고, 실천하는
「찬미받으소서」 여정¹

05 열린 마당
신간 도서 소개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filipino 리피 <동방박사들의 경배>

1496년경, 패널에 템페라, 우피치 미술관, 이탈리아



입당송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제1독서

이사 60,1-6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꽂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2독서

에페 3,2.3.5-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마태 2,1-12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이태원 시몬 신부
서석본당 주임 겸 교구법원장

주님을 바로 알아 뵙고 진실되어 살아가는



오늘 복음에 의하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보잘것없는 고을입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유다 민족사에서 높이 추앙받는 이스라엘 2대 임금 다윗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복음의 6절에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인즉, 베들레헴은 과거에는 가장 작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작은 고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민을 다스릴 메시아가 그곳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처음으로 찾아와 경배한 이들은 동방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입니다. ‘박사’라는 말은 그리스어 원문에 의하면 ‘마고스’입니다. ‘마고스’는 점쟁이라는 뜻인데 문맥으로 보아서 별을 보고 점을 친 까닭에 ‘점성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징조를 알아보고 그분을 찾아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아기 예수님이 전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점성가들로 불리는 이방인들이 동방에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원래 공현 대축일은 성탄 대축일 후 12일째인 1월 6일에 지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지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사람들의 사고방식, 기대, 예상, 판단기준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복음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낮은 곳의 대명사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정치가도, 학자도, 종교인도 아니고 이방인 점성가들이었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가지고 있는 유다인들도, 경건한 종교인들도, 성서학자들도 그리고 시대의 징조를 식별하고 예언을 풀이하는 대학자들도 이 메시아의 출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나라 안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는 목자들과 나라 밖에서는 이방인 점성가들만이 메시아 출현의 징조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제2독서에서 전하듯이 이방인들도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구원의 보편성이 시작되었다는 장엄한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도 비록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이 소박하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아뵙고 진실되어 살아가는, 드러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춘천교구의 모든 교우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의 아픔에 응답하며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태도, 가장 깊은 언어

회의실에서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을 말한다. 논리는 옳았으나, 그의 태도는 마음의 문을 닫게 했다. 사실 그의 말은 제법 설득력이 있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의 의견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의 말과 상관없이, 내 눈에는 팔짱을 낀 모습이 먼저 들어오고, 귀에는 ‘이것도 모르느냐?’라는 듯한 말투가 남았다. 더욱 마음이 불편한 것은 이야기를 마친 뒤 다른 사람의 말에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보는 태도였다. 그의 말은 옳았지만, 그 태도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었다.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말의 내용이 7%, 목소리 톤이 38%, 표정이 55%라고 한다. 물론 이 법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아무리 말의 내용이 완벽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내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 오히려 내용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진심 어린 목소리와 표정이 내 뜻을 더 깊이 전달한다. 물론 내용도 틀려서는 안 되겠지만.

언젠가 인공지능(AI) 연구자가 쓴 책에서 이런 질문을 보았다. “앞으로 인공지능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놀랍게도 그 답은 ‘창의력’도 아닌 ‘태도’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 잘 기억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해 왔다. 하지만 이제 인간의 지식과 정보력은 인공지능을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오직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인간다움’을 길러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길러야 할 덕목은 다정함, 예의, 친절, 배려 같은 인간적인 ‘태도’이다.

이런 덕목은 단순한 마음가짐만으로는 길러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운동 영상을 보면서 내가 운동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요리 영상을 보며 내가 요리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직접 몸을 움직여야 운동이 되고, 계란프라이 하더라도 해봐야 요리가 된다. 마찬가지로 인사 한마디, 미소, 예의 바른 말과 행동, 공동체를 위한 작은 희생 같은 노력을 꾸준히 실천할 때 비로소 좋은 태도가 서서히 자란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1요한 4,12).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다움과 하느님의 자녀다움을 지켜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태도가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비닐 및 플라스틱 사용 절제하기

함께 읽고, 실천하는 「찬미받으소서」 여정: 서문

글: 김선류 타대오 신부

회칙 「찬미받으소서」란?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는 교황의 세 번째 교도권 문헌이자 두 번째 회칙이며, 첫 번째 사회 회칙입니다. 이전 문헌들이 주로 교회 구성원들에게 향해 있었던 것과 달리, 「찬미받으소서」는 「선의의 모든 사람」에게 보내졌습니다. 신앙을 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한 보편적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회칙은 환경 파괴의 원인을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방향으로 「통합 생태론」을 제시합니다. 이 문헌은 1891년 「새로운 사태」 이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회 문헌으로 평가되며, 2015년 파리 기후 협정과도 연결되며 국제 사회에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찬미받으소서」라는 제목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찬가」에서 따온 표현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모든 피조물과 형제자매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인은 태양과 바람, 물과 흙을 누이와 형제로 부르며 하느님의 창조 안에서 모든 존재가 서로 얹혀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교황은 이 영성을 이어받아, 지구가 우리를 돌보는 어머니이자 누이와 같은 존재임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그 돌봄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이 회칙을 통해 교황 문헌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온난화와 생태 위기를 전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교황은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노력은 어디를 향하는가? 그리고 지금 지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류 전체가 성찰에 나서도록 초대합니다. 또한 인류가 여전히 힘을 합쳐 우리 공동의 집을 다시 세울 능력이 있다고 희망을 전합니다.

이 회칙은 프란치스코 교황 혼자의 생각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 시민 단체의 연구와 성찰이 함께 녹아들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생태적 지혜가 담긴 문헌입니다. 그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깊어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고, 실천하는 「찬미받으소서」 여정」에서는 전문적인 해설보다는 회칙의 핵심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하고, 신앙적인 나눔을 통해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내고자 합니다. 심오하고, 복잡한 내용을 우리의 삶 안에서 조금씩 구체화하는 데 좋은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칙을 읽고 실천 사항을 나누며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을 깊이 느끼고,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며, 한 걸음씩 생태적 회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아름답고도 절실한 찬미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회칙 읽기〉

1주 차: 「찬미받으소서」 서문, 1장 1항~16항
2주 차: 1장 17항~42항

〈실천 사항〉

정해진 시간에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봉헌하기

일회용품 사용 멈추고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신간 도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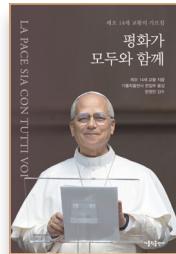
사랑의 동반 청소년의 성과 사랑



돈 보스코의 교육학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성과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서의 접근을 안내하는 책. 교육자를 위한 도구인 동시에 교육자가 지닌 사랑에 관한 교육 문제와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성찰할 기회를 줄 것이다.

안토넬라 시나고가 / 미겔 앙헬 가르시아 모르쿠엔데 지음
240면 · 1만3천원 · 돈보스코미디어

평화가 모두와 함께



레오 14세 교황의 초기 연설과 강론을 발표 순서대로 엮은 책이다. 전 세계를 향한 당부는 물론, 다양한 청중을 아우르는 발언이 담겨 있다.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교황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평화와 사랑, 일치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우리 삶의 기준을 재정비할 수 있다.

레오 14세 교황 지음 · 224면 · 2만원 · 가톨릭출판사

기도의 정원



원예가인 저자가 정원을 가꾸며 체험한 영적 여정을 담은 책으로, 가톨릭 신앙과 전통 원예학을 결합하여 '기도와 묵상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정원'을 제시한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이 하느님과의 대화이자 마음을 가꾸는 일임을 깨닫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을 섬세하게 보여 준다.

마거릿 로즈 릴리 지음 · 400면 · 3만5천원 · 성서와함께

하느님이 주신 나의 이름은



'바오로딸 혜화나무' 목요특강에서 기획한 김영선 수녀의 영성 강의를 간추려 정리한 묵상서. 초심자와 젊은이를 비롯하여 모든 이에게 어렵지 않게 성경 내용을 전하고 있으며, 하느님 안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데에 좋은 동반자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김영선 지음 · 192면 · 1만2천원 · 바오로딸

100일 동안 깊어지는 가톨릭 신앙 생활 챌린지 북



가톨릭출판사가 펴낸 도서 가운데 100권을 엄선하여 각 도서에서 두 편씩 짧은 글을 발췌해 엮었다. 각 글 아래에는 글의 핵심을 담은 문장과 질문을 수록해 묵상의 여운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매일 읽고 쓰는 습관을 통해 신앙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길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엮음 · 432면 · 2만4천원 · 가톨릭출판사

마태오, '두려워하지 마라'의 복음



저자 이민영 신부는 마태오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다시 읽어 보자고 제안한다. 이 말씀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안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향하도록 부르신다. 독자들은 위로와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민영 지음 · 216면 · 1만9천원 · 성서와함께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견진 성사

성산 본당: 1. 10.(토) 11시

사제평의회 및 참사회

1. 13.(화) 10:30, 교구청 대회의실

현리 본당 사목방문

1. 16.(금)~18.(주일)

황영택 요한사도 신부 30주기



생년월일 : 1948. 02. 02.
서품일 : 1976. 12. 09.
선종 : 1996. 01. 04.



백응만 다마소 신부 76주기



생년월일 : 1919.
서품일 : 1945. 11. 21.
선종 : 1950. 01. 05.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니다.

소중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끼 나눔을 실천하세요

한삶밥집(무료급식소) 후원 신청 안내

[후원계좌] 신협 131-021-628060
국민 301201-04-415579[ARS후원] 060-700-5020 (오병이어)
전화 한통 1만원이 후원됩니다.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북호동)

우명숙 글라라 · 김길영 마르티노

이철형 세무사사무소(속초)

양도 · 상속 · 증여/세무상담 · 신고

재산 컨설팅/세무조사 대응

☎ 636-9070, 010-9880-9070

이철형 토마스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레지아직속 Co.Cu. 단장 간담회 및 월례회의

1. 4.(주일) 11시, 말당회관

좋은이웃상담실 월례회의

1. 5.(월) 10시, 한삶경당

청년성서 10차 창세기 연수

1. 8.(목)~11.(주일) 가톨릭회관

대학원 1학년 신학생 영신수련 30일 피정

1. 9.(금)~2. 9.(월) 말씀의 집

사랑의 기쁨 3기 청년 모임

1. 10.(토) 10:30, 교육원

신학생 부모 기도 모임

1. 10.(토) 14시, 성소국

춘천 평협 월례회의

1. 10.(토) 15시, 말당회관

1월 카나 혼인 강좌

1. 24.(토) 18:30, 우두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연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명환경부

조선희 필립보, 공 토마스 신부 증언 수집

강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조선희 필립보, 공 토마스 신부에 대한 증언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두 골룸반 선교사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나눠주실 분은 연구소로 연락 바랍니다.

☎ 033-261-6081

황영택 요한 사도 신부 30주기 미사

1. 5.(월) 11시, 주교좌 죽림동 성당

신부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는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춘천 성심병원 원목실

위치: 본관 10층

입원 시 원목실로 연락 주세요.

☎ 033-240-5200, 010-4164-4610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속초 글라라형제회 ☎ 010-4397-8683

춘천 디모데오형제회 ☎ 010-8392-8972

강릉 F.솔라노형제회 ☎ 010-6375-3934

WYD 봉사자 사전 모임

1. 4.(주일) 14시, 교육원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1. 10.(토) 10시, 스무숲 성당

후원회 현황 QR코드 스캔▶

후원회원들과 입대를 앞둔 신자와 그 가족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033-263-9750



성령쇄신 봉사회기도회

매 (화) 19~22시, 소양로 성당/미사: 19시

☎ 010-2962-4051 회장

렉시오 디비나(성독, 거룩한 독서)

1. 13.(화) 10~17시까지, 교육원

대상: 한번이라도 렉시오디비나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모두 초대함

지도: 김택신 신부 / 미사: 16시

참가비: 1만원(점심포함)

☎ 010-9345-5593

체나콜로 모임과 월미사

1. 17.(토) 소양로 성당

10시: 체나콜로 기도 / 11시: 미사

☎ 010-9931-1016 총무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1. 11.(주일) 14~16시, 퇴계 성당

예약 후 정해진 시간에 상담

천주교 인권 위원회 위원 차진태 모세

☎ 010-3721-9144

솔모루 이주민 센터 미사 안내

필리핀 공동체 11시 /동티모르 공동체 13시

베트남 공동체 14:30

주소: 경기 포천시 송우로 30번길 10-6

본당 알림

죽림동성당 “주일밤미사 · 평일낮미사”

주일 밤: 매 (주일) 21시

평일 낮: 11시 연중무휴

누구나 오실 수 있고, 언제나 환영합니다.

영동지구 상설 고해소

매 (금) 14~17시, 임당동 성당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북호동)

우명숙 글라라 · 김길영 마르티노

이철형 세무사사무소(속초)

양도 · 상속 · 증여/세무상담 · 신고

재산 컨설팅/세무조사 대응

☎ 636-9070, 010-9880-9070

이철형 토마스

오토콘 보청기 속초점

무료 청력 검사 / 이명 난청 상담

131만원 보조금 / 출장 방문

☎ 010-5709-2112

김성현 루치오

중앙산부인과(속초)

산전진찰, 부인과진료, 골다공증 관리

국가암건강검진(자궁, 유방암)

성인 예방접종, 영양수액

☎ 033-637-9887

김균하 다미아노

인준시설

밀알재활원 직원모집

분야: 생활재활교사 2명(남숙소)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공정한 채용을 위해 출신학교, 주민번호, 사진, 추천인, 종교 기재금지 접수: 우편, 이메일 irene-moon@naver.com
 ☎ 033-261-3112 www.milalfriend.or.kr

강릉시 주·단기 이용자(입소자) 모집

대상: 강릉시 거주 발달장애인
 장애인주간이용(나래교실)/단기거주(푸른나래)
 ☎ 033-652-5041 문의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한삶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지원 및 기타상담 지원
 개인, 부부, 가족 갈등 상담 (9~18시)
 ☎ 033-257-4687 www.cchanlife.com

춘천시립양로원 입소 어르신 모집

국민기초생활 수급 어르신, 일상 생활에 지장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
 ☎ 033-262-0303

2026년 병오년, 올해도 조합원님의 꿈과 희망
 모두 가톨릭춘천신협이 어부바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우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톨릭춘천신협 본점(죽림동) ☎ 033-255-6742

지점(거두리) ☎ 033-262-6742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tv 274번

산골농장 흑염소 건강원

"청정 양구" 자연 방목 흑염소
 "30년 전통"의 농장 직영 건강원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010-6443-4811
 신양순 다리아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 · 김경옥 비르짓다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 20.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550만원)
2. 2. 이탈리아 일주 11일 (535만원)
3. 일본(나가사키 운전 히라도) 4일 (155만원)
3. 17.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495만원)
4. 6.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3일 (550만원)

☎ 010-5235-3533 www.catholictravel.co.kr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 피정

3. 5.(목) 17시~8.(주일) 15시, 제주성이시돌피정의집/피정동반자: 최시영 신부(예수회)
 피정비: 30만원/주최: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 064-739-0951 신청

1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1. 10.(토) 12:00~17:30

강사: 송명은 요셉 신부(서울대교구)
 삼성산 화요 철야기도: 매(화) 21:30~익일 4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미사/안수/중식무료)
 ☎ 010-3310-8826 / 02-874-6346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제주순례: 1. 23.~25./2. 6.~8./2. 27.~3. 1./3. 27.~29.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1. 15.~18./1. 30.~2. 1.
 추자도성지순례: 3. 5.~8./3. 12.~14./3. 18.~21.
 ☎ 064-732-4702 면영의 집

춘천시립요양원 입소자 및 직원 모집

입소자 (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 급여대상자)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033-261-9658

일반알림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6년 연중피정 접수중)
 자연순례/한라산: 1. 22.~24./1. 26.~28./2. 2.~4.
 2. 7.~9./2. 20.~22./2. 26.~28./3. 1.~4.(추자도)
 ☎ 02-773-1455, 064-796-4182 접수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2. 14.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69만원) 구정연휴
3. 10.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5일 160만원-대한항공)
3. 24. 튀르키예, 그리스(12일 480만원)
4. 7.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50만원)
4. 14. 홍콩, 마카오(4일 170만원)
5. 12.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12일 590만원)KE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제주 3박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 (38만원), 전국 2박 3일 (30만원)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20만원)
 일본 북해도, 나가사키, 아키타 3박 4일 (120만원)
 ☎ 010-4239-1929 마르코투어

예수회센터 봄학기 동영상 강좌/3월 개강

- 구약성경 아카데미: 귀환시대, 주원준 박사
- 성경대학: 요한복음2, 송봉모 신부 *7회
- 르네상스 전기에서 20세기 성미술, 박혜원 강사
- 신의 은총, 건반위의 기도, 노애리 박사
-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최지원 수녀
- 그리스도인의 내적 돌봄: 내적 자유, 흥기령 교수
- *각 10~12주,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 02-3276-7733 신청 center.jesuit.kr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42일>

26년 3. 28. / 599만원 (+2,200유로)
 루르드, 파티마 순례 포함/catravel.co.kr
 ☎ 070-4086-0207 가톨릭 트래블

춘천 장례식장

교구와 장례 복지 협약 체결
 관+수의 무료제공
 사망진단서 자체 발급
 ☎ 010-4479-4414
 이성범 요셉 사무국장

타이어 스타

타이어판매 및 교체
 배터리 교환 / 엔진오일 교환
 춘천시 퇴계농공로 17(예치과 뒤)
 ☎ 263-8403, 010-6376-8403
 김혜혜 베네딕타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주보 상호광고 접수 모집

광고기간: 3개월 / 6개월
 구비서류: 교직사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www.cccatholic.or.kr
 *금액 및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참고
 ☎ 033-240-6012 홍보실